

# 전남 제조업 근간 소부장산업 '쑥쑥'

〈소재·부품·장치〉

도·전남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산학연 1200억원 예산 확보  
과제 선정 지난해 6개→12개  
산업부 인증기업 17곳→45곳

전남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은 전남도내 소재·부품·장치 관련 기업들이 정부, 산학연기관 등의 과제를 잇따라 수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치 기술개발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에 전남도내의 기업들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1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책지원 내 '소부장산업(소재·부품·장치산업) 추진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지역 내 산학연에서 이차전지 소재, 경량 마그네슘 소재, 수지개발 등의 기술개발과 데이터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등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남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대책 2030'을 마련한 바 있다. 산업부의 소부장 기술개발사업에는 지난해 6개의 신규과제(55억8000만원)가 선정되는데 그쳤으나, 올해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12개의 신규과제(264억원)가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지난 2019년에 참여한 6개 기업은 모두 기술개발을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 기술개발 주도권이 미미했으나 올해 신규 참여한 12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전남지역 내

에서 개발부터 생산까지 주도적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산업부가 인증해준 전남지역의 '소재부품 전문인증기업'은 지난해 7월 17개사에서 45개사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소부장 강소기업100'은 (주)삼우에코가 최종 선정돼 전남의 1호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5년간 총 182억원 규모의 연구 개발, 벤처투자, 연구인력, 수출, 마케팅 등의 지원과 3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전용 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향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인증 확대와 중장기 공급 안정 38개의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철저한 기획을 통해 중앙정부 사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전남지역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 인재 양성 앞장

도내 3개 수산계고 학생 실무교육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도내 3개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회에 걸쳐 수산계 고교 실무교육에 나선다. 이번 실무교육은 유망 품종 양식산업 동향과 현장체험,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학진학과 취·창업 등 진로 결정을 앞둔 수산계고교 재학생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지난달 28일 완도수산고부터 시작해 11월 3일 신안해양과학고, 11월 10일 여수해양과학고 순으로 각 학교교별 이틀간 이뤄진다. <사진>

1일차에는 '해상 양식기술과 성장 모니터링'을 비롯 '경제성 있는 참조기 양식기술' 교육이 진행되며, 2일차에는 뱀장어 양식관리 실무교육과 해수 관상어 산업동향 강의, 양식관리 실습으로 짜여졌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을 수강한 모든 학생에게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향후 취업인 후계자 등 해양수산사업 선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료 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 우수생을 선발해 시상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전남 미래 수산인재 양성을 목표로 도내 수산계 고등학교와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8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8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스마트팜산업협회·FAO와 박람회 공동주관 업무협약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달 29일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와 공동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가진 공동주관 협약식은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부제에 맞게 농업 전문 민간단체의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박람회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국내 스마트 농업 주력 기업 유치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마트 농업 확대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게 된다. FAO한국협회는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회원국의 농업관련 정부 담당자 초청 및 국제학술행사 개최를 주관해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2021국제농업박람회 키워드인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전문 부스 운영을 민간이 전적으로 주관토록 하고 있어, '민간참여형' 박람회를 벗어나 '민간주도형' 박람회로 전환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및 기후변화와 같은 각종 악재가 농업현장으로 이

어저 스마트 농업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며 "스마트 농업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농업박람회 참여가 대한민국 농산업을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회 박람회 성공개최에 이어 5회 연속 국제행사로 준비중인 2021국제농업박람회는 내년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광주시 여성지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전남도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주관으로 최근 광주 여성 지도자를 초청, 전남의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농촌 체험을 통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은 코로나19와 수해,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은 친환경 농가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무엇보다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판로에 이르기까지 이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광주시 여성지도자를 초청, 친환경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들은 첫날 곡성군 죽산 휴양마을과 삼기 토란 작목반을 찾아 사과와 알토란을 수확하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 마진 없이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도 방문했다. 또 이들은 유기농법을 이용해 짬 채소를 재배하는 담양 두리농원에 들러 친환경농산물이 가정으로 전달되기까지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으로 이틀간의 행사를 마쳤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웹툰·영상 지역인재 육성 '괄목 성과'

창작 아카데미 74명 수료생 배출  
9개 작품 다음·카카오웹툰 연재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이 지난 1년간 웹툰·영상 등 전략 장르 콘텐츠 창작자들을 집중 육성해 다음이나 카카오 등의 웹툰 연재 작가를 배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3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순천시의 웹툰 산업에 발맞춰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은 '웹툰 창작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했다. 웹툰 작가 인큐베이팅 과정인 이번 프로그램은 웹툰 창작

기획 과정부터 유명 웹툰 플랫폼 연재작가와 함께 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인 웹툰 창작 실전 워크숍, 웹툰 성과 네트워킹 데이 운영 등으로 구성돼 최근 7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웹툰 실전 워크숍에 참여한 21명의 작가 지방생은 이무기, 유령선, 손창균, 서강용 등 유명 플랫폼 웹툰작가와 일대일 멘토링을 거쳤으며, 최종 선정된 9개 작품은 11월 중 온라인 웹툰 플랫폼인 '다음 웹툰', '카카오 웹툰'에 연재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개최한 실패와 콘서트에서는 웹툰 '데미'로 유명한 양영순 작가가 참여해 웹툰 작가로서 겪었던 실패와 성공담을 이야기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을 들은 고병준 작가는 "지역 유명 웹툰작가인 양영순 작가와 웹툰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웹툰 크리에이터데이'를 통해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순천글로벌웹툰캠퍼스에 참여했던 지역 웹툰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해 지역민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이준국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만화 웹툰 전문가와 만화 웹툰 산업 포럼을 개최하고, 전남 웹툰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10월 전통주... '장성만리소주' 선정

전남도는 10월을 대표한 남도 전통술로 장성군 소재 해월도가의 '장성만리소주' <사진>를 선정했다. '장성만리소주'는 장성 쌀과 밀을 장기간 숙성한 약주를 증류한 술로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살아있는 프리미엄 전통 증류주다. 장성군 백양사 입구에 위치한 해월도가는 전남의 대표 양조장 중 한 곳으로, 직접 띄운 누룩과 내장산 자락의 맑은 물, 풍요로운 남도의 쌀과 밀을 향아리에서 자연 발효시킨 후 오랜 시간 숙성하는 전통 기양주 방식으로 술을 빚는다. '장성만리소주'는 알코올을 51%로 높은 도수의 술이지만 입안에 머금었을 때 짜릿함과 함께 단

맛이 나고 서서히 삼키면 구수함과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어 목넘김이 부드럽다. 지난 2008년, 2011년 국(麴)선생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임해월 해월도가 대표가 빚은 '장성만리소주'는 2019년남도 전통술품평회에서 증류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